

文化戰爭시대의 地域文化

이 왕 기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 문화와 전통

문화는 민족의 정신적 활동과 물리적 표상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표출 현상이다. 흔히 정치, 사상, 경제, 종교, 예술, 문학 등 모든 분야에 이와 같은 정신적 표현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문화란 민족의 생활양식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현상은 민족성을 근원으로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정신이 줄기를 이루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서서히, 분야별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양식적 변환을 거쳐 왔던 것이다.

흔히 역사적 전통문화를 그 시대,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의 관념 속에는 '문화'라는 부분이 내재되어 있기도 하다.

전통이란 하나의 사회집단이 관점을 가지고 오랜 시간동안 연속적으로 수행해 오는 관습적 행위의 유산이다. 관습 중에서도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고도의 규범적 의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전통은 습관과 풍속이 시간적 순서를 밟아 전시대에서 다음시대로 전승되는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간적으로 습관과 풍속이 '전파'되는 것과 습관과 풍속이 시공적인 '전달'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전통은 어떻게 보면 습관과 풍속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이라고도 하겠다.

전통은 가족이나 국가 또는 민족 및 지역사회와 같은 일정한 집단공동체에 전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기술 등의 양식을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려오는 문화유산 가운데 현재의

생활환경에 효용성이 있는 것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화유산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치가 인정될 때 그것이 하나의 문화형태로 전통이라는 이름아래 고려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전통이란 반드시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에는 망각되었던 것이 후대에 전통으로 다시 나타나는 일도 흔히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해 전통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틀에 얽매어져 있는 사고는 아니라는 것이다. 언제나 새로운 사유체제와 주관적 판단이 동반되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문화의 접촉은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나 존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전통은 생성되고 소멸되는 반복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전통문화라는 것은 언제나 내적 갈등을 통해 신문화를 창조해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토속문화와 이입문화의 접촉이 時空的인 전승에 따라 전통이 나타나고, 이러한 메커니즘의 틀 속에서 독특한 지역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2. 지역문화의 特殊解

‘전통문화’는 언제나 변화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면 ‘민족문화’는 시간과 공간이 좀더 넓어지면서 동질집단의 본질적인 문제라 하겠다. 가령 문화에 있어서 ‘지역성’이라고 하면 지역문

화의 특징과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받아 들여져야하고 또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충남지역 문화의 보편적 이해는 민족문화라는 큰 범주 내에 있지만 그 범주에서도 특징적인 역사문화, 문화현상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충남의 지역성에는 백제문화의 심상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제문화의 발상과 흐름이라는 독특한 문화현상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의 지리적 특징은 다른 곳과 달리 험준한 산맥이 적고, 비교적 넓은 평야를 지니고 있으며 생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다른 지역은 침범할 필요가 없다.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상대를 침탈해야 하는 산악지대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그 기질이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농경지의 여유가 있고 넓은 들을 유유히 흐르는 강줄기 또한 여유가 있었다.

백제의 지리적 환경은 독자적으로 문화를 형성해 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 이었다. 북으로 험준한 고산준령과 고구려가 있어 외부로부터 문화적 양분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바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과 역사적 배경은 전부 아니면 전무를 강요하는 한국적 심성 중에서도 중용을 견지하는 지역정서를 낳게 된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이는 나아가 전통적 보수성향 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지역문화를 형성하게 된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일찍이 서해 바다로 진출했던 경험은 진취적이고 개척정신을 낳게 한 또 하나의 근원이기도 하다.

백제 문화가 동시대 국가 중에서도 가장 우수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조건과 기질이 오랜 세월 동안 형성인자로 작용했던 것이라 하겠다. 전통문화의 지역성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그 특징을 견지하면서 독특한 지역문화를 창조했다. 기호학의 본거지를 형성하여 학문적 진취성을 발휘하고 그 문화적 토양을 형성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문화가 기반이 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특징적 지역문화가 민족문화로 보편화되는 것은 지역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문화로서 전통이 계승되고 문화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주민들이 지역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방정부는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과 정책당국이 지역문화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지역문화를 소멸시키지 않고 문화를 자원화 하는 관건이 된다.

3.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세계화

머지않아 '문화'가 국가간, 지역간 경쟁에서 가장 큰 무기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일 수도 있다.

지역문화가 민족문화의 보편성이나 세계문화에 편승되어 버릴 때 그 지역은 이미 독창성을 상실하고 만다. 즉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역의 독자

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는 결국 앞으로 지방시대에 있어서 생존과도 그 맥락이 이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그 동안 우리에게 민족문화의 전통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한민족의 우수한 과학기술 문화가 있었음을 배웠고 또한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 첨성대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천문대이고 가장 오래된 것이다.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는 우리의 선조가 만들었고 측우기는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섰다. 해시계, 물시계 등 이미 오래 전에 훌륭한 과학문명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찍이 천문대가 있었으며 지금 우리 천문학은 최고로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 했다면 인쇄술에 걸맞은 학문이 발달되어야 한다.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서 만들었고 더구나 1770년 이후 200년간 빠짐없이 강수량을 측정한 세계 유일의 도시라는 서울은 비가 조금만 더와도 물난리를 겪고 있다.

이러한 전통 문화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있으며 그 요인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과학기술의 수요가 특정 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 서민을 위한 응용과 개발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기술을 나만 소유하고 있다는 자기 도취적 우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전자는 대중화의 실패이고 후자는 타분야와의 비교를 기피한 때문이다. 개개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볼

때 매우 훌륭하고 위대하지만 서로간의 응용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천문학이 위대한 인쇄술과 조우했다라면, 측우 기술과 토목기술이 조우했다라면, 측우기술과 천문학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방화시대는 지역문화를 새롭게 재 창조해 가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이러한 때 앞에서 예로 들었던 몇 가지 문화적 속성은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

극히 부분적인 문화현상이 지역문화를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수한 지역 문화라 할지라도 지역에서 소외당하고 재창출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다. 문화의 유기적 관계가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 생활 근저에서 창조되지 못할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충남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특한 지역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한편 생각하면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정신문화가 지역성을 상실하고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화전쟁 시대가 도래된 지금 지역문화와 지역성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흔히 보고 접하는 것이라도 관심을 버릴 때 지역문화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가장 지역적인 문화가 자원으로서 활용될 때 지역의 정체성(identity)은 살아날 수 있고 지역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지역을 가 보아도 획일적이고 보편적이라면 방문할 이유도 없거니와

‘지역’이니 ‘지방’이라는 가치도 단순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충남의 도시, 농촌, 어촌은 모두 그 나름대로 문화가 있다. 그러나 그 문화는 반드시 그 지역의 특수한 정보와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며 그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유형이나 무형 문화재는 지역문화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지역의 문화재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보존하는 노력이 하나의 운동으로 일어나야 한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배려 이전에 주민 스스로 보존하려는 노력이 앞설 때 그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과 정체성을 간직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지방시대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운동만으로 지역문화가 재창출 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화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 재정적인 배려와 후원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공무원들에게 문화관련 프로그램이 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역의 독특한 문화는 지역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며,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나아가 세계화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문화전쟁 시대의 최후 승리자는 ‘지역문화’이다.

4. 質의 문화에서 어메니티(amenity)의 문화로

문화는 상대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적 특징 또는 지역적 정체성이 있어야 문화의 상대적 가치가 발휘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편성 보다는 특수성이 잘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문화는 인간의 생활양식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인간이 삶에 대한 의미를 느끼게 하는 절대적 가치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문화라는 것이 인간의 생활과 괴리가 있을 때 그 절대성은 사라지고 만다.

‘문화’는 이와 같이 상대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가 조화롭게 표출되어 인간과 함께 하며, 나아가 전통문화와 문화적 전통이 유기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전통의 보존 만큼 전통의 창조가 이루어 질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이제는 문화의 질이 높인다는 것 만으로 문화행정이나 문화운동이 만족해서는 안된다. 미래의 문화는 질의 문제가 아니라 어메니티(amenity: 즐겁게 즐기는 것)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행정가들의 문화적 안목도 높아져야 하고 기업이 문화를 지원하는 ‘메세나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가 가장 큰 자원이 되어야 하며 그 문화가 인간 생활에 풍요로움을 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다.

